

당산나무이며 궤네기당 신목의 팽나무

📍		📍
지정번호	제주-13-3-5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지정년도	1982	김녕리 2121
관리기관	제주	33° 32' 55.66" N
수령	360년	126° 45' 08.91" E
수고	14m	
흉고둘레	4m	



당산나무(당산목)의 신목인 보호수(제주-13-3-5) 팽나무는 작은 동굴을 지키듯이 입구에서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자라고 있다. 주변은 마을길이 지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사방으로 발이 둘러싸고 있다. 팽나무의 나이는 360년으로 추정된다. 마을 주민들은 나무나이가 400년 이상이라 말하고 있다. 나무높이는 14m, 가슴높이둘레는 40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7m 정도이다. 원줄기는 야지의 비탈면에 있어서인지 약간 비스듬한 편이며, 높이 3.5m 정도에서 5~6 갈래로 크게 갈라진 후 다시 여러 개의 가지 줄기를 내어 옆으로 퍼져 있다. 발쪽으로 넓게 퍼진 가지 줄기는 철 받침대를 받치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마을 수호신과 관련이 있다. 동굴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고목의 팽나무는 무속 신앙의 기능을 하였다. 팽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신령스런 신의 '궤네기또'가 좌정한 신당이라는 의미에서 '궤네기당'이라 부르며, 팽나무가 덮고 있는 동굴은 '궤네기동굴'이라 부른다. 궤네기동굴은 하나로 마트 바로 인근에 있고, 김녕중학교 북쪽 400m 지점에 있으며, 반달돌칼 등 기원전 5세기에서 1세기 사이의 유물이 발견되어 문화유적으로 지정되었다. 초기 철기시대에 이 굴에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무당의 본풀이에도 이 마을 최초의 정착지는 궤네기동굴이라 되어 있다. 이 마을의 정착 역사가 궤네기동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궤네기동굴은 2방향으로 입구가 나 있고, 전체 길이는 500m에 달한다. 주민들은 궤네기굴 입구가 4곳이라고 말한다. 팽나무 아래에서는 조선시대에 '돛제'라는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돛제는 제사를 지낼 때 통돼지를 잡아서 올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최근까지 신당으로의 역할을 하던 장소이다. 신당이 폐쇄된 후에는 궤네기당으로 부르지 않고, 궤네기동굴로 부른다.